

독자권익위원 칼럼

최종명

독자권익위원
허그맘허그인심리상담센터
광주무등점 원장



작년 윤석열의 불법 계엄 때문에 거국적 축하를 충분하게 하지 못했던 한강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에서 그는 ‘과거가 현재를 도울 수 있는가, 죽은자가 산자를 구할 수 있는가’의 화두를 남겼다.

아울러 윤석열 탄핵 과정을 거치는 동안 대한민국의 과거를 자의반 타의반으로 복기(復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한강 작가의 말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과거의 우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시대적 정신, 문화, 사상, 사회공동체의 합의들이 현재의 우리에게 계속돼 오고 있고, 그것이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때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 아닐까한다.

이번 윤석열 불법 계엄-탄핵으로 이어지는 대한민국의 지금의 상황에서 과거 동학농민운동, 3·1운동, 4·19 혁명, 5·18민주화운동에서 국민(민중)들의 사회공동체 합의점이었던 이념들이 작용했다고 간주된다.

응원봉을 들고 나온 학생들부터 자녀의 손을 잡고 나온 부모들, 과거 70~80년대 군사독재 반대를 했던 60~70대 어르신들, 우리 사회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30~50대 젊은이들이 모두 한마음을 가지고 우리나라를 지키고자 거

리로 나온 과거의 움직임을 유지해준 것이다.

하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내가 유지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이 있다. 사회공동체가 합의에 이루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있는 후 그것에 대한 해석과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사회적 움직임 중에서 아직도 진상이 다 밝혀지지 않고, 그에 대한 과오가 밝혀지지 않은 지점들이 있다는 것이다. 화해와 용서의 과정, 그리고 그에 대한 교훈이 계승되는 과정에서 과오를 명확히 밝히고 상과 벌이 명확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박근혜 탄핵과 형사처벌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석열 계엄과 탄핵과정에서 다시 반복되는 것을 보면 역사는 반복된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하고, 무엇인가 앞선 사건에서 정산되거나 정리되지 않은 것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렇게 정리되지 않고 사회적 ‘찜찜함’으로 ‘미적지근하게’ 남아있는 사건들이 산적해 있다. 한 사람의 시민으로써 답답하고 이유가 궁금해진다. 도대체 왜 이럴까?

지난 16일은 세월호 참사 발생 11주기다. 벌써?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간이 많이 흘렀다. 5·18은 올해 45주년이 되지만 아직도 그 진상이 전부 다 올바르게 밝혀지지 않았다.

이 밖에도 천안함,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인 사건들이 지지부진하게 산적해 있다. 이런 지지부진함과 찜찜함이 남아 있는 한 우리의 불편한 역사는 계속 반복되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을 우리 후배들에게 ‘사회적 합의’로서 물려줘도 되는 것일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끝낸 ‘가해자

도 잘 지내도 괜찮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더라. 너네들은 나를 처벌하지 못해’라는 것을 사회적 합의로 만들어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편감이 생긴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번 윤석열 계엄-탄핵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주위에 있는 한국인들에게 ‘대한민국 정말 멋진 나라다. 다시 보게 됐다. 정말 민주주의 국가구나. 선진국이다. 부럽다’라는 등의 찬사를 보냈다는 SNS 글을 많이 보게 된다.

우리는 ‘멋진 나라의 멋진 국민’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잘 참아주고 잘 견뎌주면서 같이 집을 나눠 질 줄 아는 국민이다. 그래서 IMF 사태도 같이 견뎠고 가장 빨리 청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불의를 보면 잘 참지 못하고 거리로 뛰어 나와 자신의 의사를 전달한다. 하지만 폭력적이지 않다. 가장 질서정연하고 민주적이며, 직설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다.

이제 우리가 정리되지 않은 찜찜한 일들을 정리하고 과오를 짚는 과정을 차근차근 처음으로 해볼 차례다. 그래서 우리가 과거가 됐을 때 현재를 살고 있는 후배들이 살 만한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차례다.

모두 정리되기 전에는 ‘이젠 좀 지켜워.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나’라는 표현도 단호히 배격하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라는 ‘사회적 동의’도 물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고립과 단절

현생인류 호모사피엔스가 다른 고인류보다 더 성공적으로 적응하고 세대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이유가 사회적 학습과 문화 전달, 협력과 사회적 네트워크다.

호모사피엔스는 뛰어난 사회적 학습 능력으로 생존에 유리한 정보를 빠르게 습득하고 전달했다. 이는 세대 간 지식 축적과 문화적 진화를 가능하게 했으며, 환경 변화에 대한 ‘반사적’ 적응을 촉진했다.

비전족 간 식량 공유, 장거리 교역, 의례적 관계 등을 통해 넓은 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이는 자원 공유와 정보 교환을 촉진해 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였다.

1인 가구의 증가와 디지털 기기의 확산은 현대 사회의 불가피한 변화다. 그러나 정신건강에 대한 문제점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사람들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중요한 방향이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정부에 ‘외로움부(Minister for Loneliness)’를 설치해 외로움 문제를 국가적 차원에서 다루고 있다. 이 부처는 외로움 측정 방법 개발, 지역사회 주도 프로그램 시행 등을 통해 문제 해결에 노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커뮤니티 기반 프로그램으로 카페 내 특정 테이블을 ‘대화 환영 테이블’로 지정해 낯선 사람들 간의 대화를 장려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호주, 캐나다 등에서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고립과 단절에 대한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고립과 단절에 따른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정신건강 상담, 방랑형 서비스, 커뮤니티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협력해 위험군을 조기에 발굴하고, 상담·치료·사회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다.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용 습관을 확립하기 위해 학교, 직장, 지역사회에서 디지털 디톡스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디지털 사용 가이드라인도 마련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 소모임, 자조모임, 멘토링, 자원봉사 등 사회적 연결망을 촉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고립감 해소와 소속감을 높이고, 오프라인 모임과 온라인 커뮤니티를 병행해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적 연결을 지원해야 한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낙인 해소를 위한 대중 캠페인과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정신건강 문제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로 받아들이고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그리고, 전화·온라인 상담, 모바일 앱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접근성을 높여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고 연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한국은 OECD 국가 중 최고의 자살률’이라는 불명예가 호모사피엔스의 고립과 단절이 원인인 아닌지 고민해 볼 일이다.

독자투고

보이스피싱, 제대로 알고 대처해야

보이스피싱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럼에도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역대 최고치인 8545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91%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이 전체 피해액의 36.4%를 차지해 가장 높았고, 50대 29.0%, 40대 12.9%, 20대 이하 12.0%, 30대 9.7%의 순서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의 피해액이 빠르게 늘어나는 것을 보면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세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신용카드 발급 사칭’이다. ‘신용카드 배송 확인’을 빙자해 가짜 고객센터로 유도한 뒤 악성 앱 설치를 강요해 계좌 정보를 탈취한다.

이 밖에도 검찰·금융원 등 공공기관 사칭형, 저금리 대출 대출·정부 지원 대출을 미끼로 하는 대출 빙자형, 가족·지인 사칭형, 메신저피싱 등 다각도로 고도화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선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114나 금융회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고객센터 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의심하고, 끊고, 확인하는’ 세 가지 습관을 생활화하고, 한 번의 작은 의심이 여러분의 자산과 삶을 지켜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임재홍 여수경찰서 학교전담팀 경장

기고

문권옥

전남도 건강증진과장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 증가와 디지털 기기의 확산은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 이러한 변화는 편리함과 자유를 제공하지만, 정신건강 측면에서 보면, 고립과 단절이라는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는 자살률 증가의 잠재적 원인으로 지목되며,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인 가구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0%를 넘어섬에, 이는 사회 구조의 변화를 의미한다. 1인 가구는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지만, 동시에 사회적 연결망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가족이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 수행이 많지 않으며, 이는 정서적 고립감과 외로움을 심화시킬 수 있다.

디지털 기기의 확산은 소통의 방식을 혁신적으로 변화시켰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연결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결은 종종 피상적이며,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한계를 보인다. 소셜 미디어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쉽게 해 자존감을 약화시키고,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 디지털 소통이 대면 소통을 대체하면서, 진정한 의미의 소통은 점차 적어지고 있다.

취재수첩

‘가정의 달’ 문화예술로 의미있는 연휴

김다정

문화체육부 기자



5월은 가정의 달이자 축제의 달이다. 한 달 동안 광주지역 곳곳에서 온가족이 화합할 문화예술 공연 콘텐츠가 다채롭게 마련돼 눈길을 끈다.

먼저 개관 10주년을 맞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디지털 스포츠 축제인 ‘ACC 미래운동회’를 30일부터 6월 1일까지 복합전시1관에서 진행한다.

전숙한 운동회 문화를 디지털 기술과 현대예술을 융합해 재해석한 전시로, 최신 기술을 접목한 체험형 전시 ‘디지털 팡파머키’, ‘AI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과 더불어 운동회의 역사, 예술과 스포츠의 관계 등을 담은 아카이브 전시도 관람할 수 있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어린이가 클래식 음악을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특별 기획 공연을 마련했다.

5월 2일부터 4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선보이는 키즈콘서트 ‘모래 위의 클래식’이 그것으로 클래식 음악과 샌드아트, 내레이션을 결합해 특별한 볼거리를 선사한다.

같은 날 광주예술의전당에서 오후 7시 30분에 열리는 기획공연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도 온가족이 함께 볼만한 무대다. ‘인어공주’, ‘라이온 킹’,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 클래식 명작부터 ‘코코’, ‘모아나’, ‘겨울왕국’ 등 최근 개봉 후 꾸준한 인기를 얻고 있는 작품들까지 디즈니와 픽사의 주요 작품 주제곡을 라이브로 감상할 수 있는 기회다.

몸도 마음도 따뜻한 가정의 달, 온가족이 다함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감상하며 의미 있는 연휴를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OPINION

2025년 4월 30일 수요일

사설

‘호남권 메가시티’ 대선 과정에서 구체화해야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북을 하나의 경제동맹으로 묶는 ‘호남권 메가시티’가 6·3 대선 정국의 핫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경선에서 선출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이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해 향후 추진동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경선에 나선 나머지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도 호남권 메가시티 공약에 힘을 실고 있다.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는 “AI와 재생에너지 산업을 호남권 신성장동력으로 삼아 지속 가능한 메가시티를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호남을 AI·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며 “에너지 고속도로를 조성해 전국의 주요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광주·전남·전북연구원과 대한신호남포럼 등도 적극 가세하고 있다. 이들은 최근 순천에서 광주·전남기자협회와 전북기자협회와 공동으로 호남 공약 발표회를 열고 ‘호남권 메가시티’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호남 광역공약으로 서남권 광역철도사업을 제시했다. 이 사업은 군산과 목포를 잇는 서해안철도(110km, 국비 4조7919억원) 구축 사업이 핵심으로, 완공 시 소요시간이 기존 190분에서 92분으로 단축된다고 한다.

또 고흥~광주~전주~세종 등 호남 내륙을 관통하는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 추진과 2036년 세계 하계 올림픽 전북 유치를 위한 차기 정부의 지원과 협력도 요청했다.

지역별 공약으로 전남은 국립의대 설립과 석유화학·철강산업 대전환 추진을, 광주는 AI 모델시티와 최첨단 미래 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등이 제시됐다. 호남 공약 발표회는 다음 달 7일 전북에서 한 차례 더 열린 뒤 각 당 대선 후보에게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

호남권 광역공약은 지역 소멸 위기 속 과거 정부의 균형 발전에서 소외된 호남이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는 해법이자 추진동력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총론 수준이다. 말 그대로 공약인 것이다.

광주시와 전남, 그리고 전북은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 본선 과정에서 각 당 후보 측과 빈번히 접촉해 이 공약을 구체화시켜야 한다. 다음 정부에서는 반드시 추진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남산 농수산물식품 글로벌 인기 이유있네

전남산 농수산물식품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큰 인기다. 지난해 수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데 이어 올해도 수출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남 농수산물식품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4% 증가한 1억7916만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김과 신선 농산물, 음료 수출이 크게 늘어난데 따른 것이다.

실제로 전체 수출액의 67%를 차지하는 수산물물은 1억2051만달러가 수출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늘었는데 이중 9540만달러 어치나 수출된 김의 비중이 압도적이었다.

쌀, 배, 파프리카, 키위 등 신선농산물 수출은 984만달러로 같은 기간보다 55% 증가했다고 한다. 음료는 963만달러어치 수출됐는데 주요 수출국은 미국, 일본, 중국, 독일, 베트남이라고 한다.

무엇보다 최근 미국의 관세장벽이 높아져 전남 농수산 식품 수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호조세를 보였다는 점에서 다행스런 일이다.

실제 미국 수출도 김, 음료, 유자차를 중심으로 지난해 이 기간보다 39.6%나 증가했고 중국은 김, 분유, 오리탈을 중심으로, 일본은 김, 전복, 미역 등 수산물물을 중심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14.6%, 1.1% 늘었다. 전남의 농수산물식품 수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4억6200만달러에서 2021년 5억6000만달러로 증가했던 수출은 2022년 글로벌 경제 위기 등으로 5억6000만달러로 잠시 주춤했지만 2023년 다시 6억3200만달러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역대 최고 실적인 7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이는 1달러 현재 환율(1437원)을 적용할 경우 1조1200억원이 넘는 금액이다. 여기에는 전남도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장개척 수출상담회, 고부가가치 수출 유망품목 집중 육성,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적극적인 수출정책을 펼쳤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전 세계 한류 확산과 건강식품 수요 증가도 한 몫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세계인의 입맛을 공략한 농수산물식품의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전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10 경 제 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민 집 부 370-7082 사 진 부 370-7050	논 설 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 령 실 370-7000 총 무 국 370-7093 사 업 국 370-7090 광 고 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